

한남대학교

Hannam University Magazine
2019~2020 Winter • Vol. 28



걸어다니는 별

이은봉 시인
(본교 국문과 졸업, 대전문학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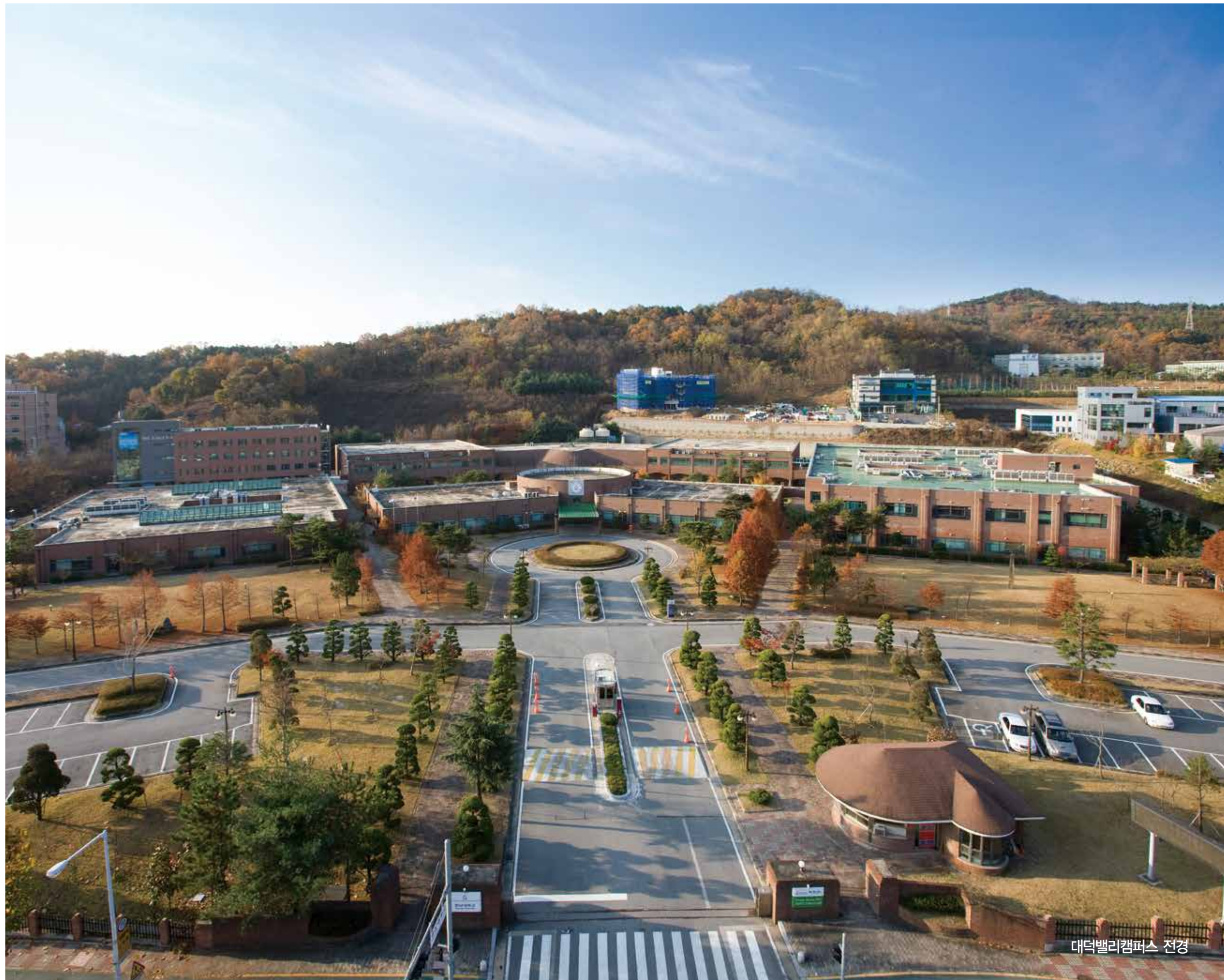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겪다가
한순간에 땅에 떨어진 별
지금은 땅 위를, 먼지 나는 흙바닥 위를
터덜터덜 걸어다니는 별

더러는 뒹굴뒹굴 굴러다니기도 하는 별
아무도 별인 줄 모르는 별
하늘에서 반짝이지 못하고
땅바닥 위로 굴러떨어진 별

젖은 낙엽 속에, 마른 풀잎 속에
제 아픈 몸 숨기고 있는 별
별 모양의 목걸이가 아닌
별 모양의 귀고리가 아닌 진짜 별

때로는 별 자신도
자기가 별인지 모르는 별
그래도 내게는
별처럼 귀하고 소중한 별
당신에게도 역시 귀하고 소중한 별

너무 지친 내 가슴 속에도 살아 있고
너무 힘든 당신 가슴 속에도 살아 있는
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별
진실이라는 사랑이라는 꿈이라는 별



한남드림

Vol. 28
2019~2020 Winter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처 한남대학교
발행인 이덕훈
편집인 김건하
취재·글 김민영, 김대진, 장효진
제작처 한남대학교 입학홍보처 홍보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오정동) www.hannam.ac.kr

이 책의 저작권은 한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제될 수 없습니다.

Contents

Pride HNU

06 한눈으로 보는 한남대학교

한남드림 Focus

- 08 •이야기 하나,
2025년 미리 가본 캠퍼스 혁신파크
캠퍼스 혁신파크 선정 축하메시지
- 14 •이야기 둘,
캠퍼스 혁신파크 선정과 의미

한남대 이슈

18 한남대학교 제17대 총장 당선자 이광섭 교수 인터뷰

창업 스토리

- 20 창업존 성과 눈에 띄네
- 22 •교원창업
국내 최고 모자 디자이너의 멋진 도전
- 24 •학생창업
못난이 과일의 화려한 변신, 학생창업이 바꾼 편견
- 26 취업·창업분야 눈에 띄는 독보적 질주

캠퍼스가 달라졌어요

28 새롭게 바뀐 한남대 캠퍼스
〈계이돈기념관, 공과대학, 디자인팩토리〉

멘토-멘티 스토리

32 모교의 후배들에게 보내는 편지
에미레이트 항공사 기장 정인웅씨

입시정보

34 한눈에 보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요강
36 학과소개 〈미디어영상전공, 상담심리학과〉

한남 사람들

38 디자인팩토리 프로젝트 코치 사라 트린다데
40 교직원 성가대 호산나찬양대의 유일한 외국인
탈메이지교양대학 존 시몬스 교수

HNU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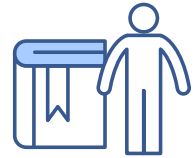
42 주요뉴스
45 한남인연

기부, 그리고 사랑

46 여러분의 기부에 감사합니다

한눈으로 보는 한남대학교

학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남대학교



재적생 수(학부) (2019 공시기준)

16,822명

• 신입생 모집인원 2,835명 • 졸업생 수 약 10만명
(2020학년도 기준)



국책사업선정 건수 및 수혜금액

최근 주요 35여개 사업

(2019. 10 기준, 선정당시 사업비 총액 기준)

약 **1,795억 원**



1인당 장학금 (2018 공시기준)

3,811,200 원

• 장학금 430억원 ▶ 학기당 실질 등록금 174만원(등록금의 48%)



교수 (2019. 4. 1 기준)

758명

• 직원 수 233명



교환학생 수 (2018. 4. 1 기준)

446명

(파견 368명, 수용 78명)

• 해외자매대학 수 48개 국가 251개 학교

사회봉사 학생 수(연간) (2018년)

9,444명

사회봉사 총 시간(연간) (2018년)

263,729 시간

- 2022년까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 활력 넘치는 ICBT 혁신 · 창업 오정벤처밸리
- 기업 유치 250개, 일자리 창출 1,500명 목표
- 총사업비 1,400억 원 투입(예정)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대학 선정



교원 창업기업 매출

(2017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활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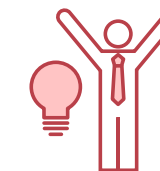
전국 **1위**



2019 매경 대학 창업지수

(2019. 6 매일경제신문 247개 대학조사)

전국 **4위**



학생 창업기업 매출액 / 학생 창업 지원금

(2017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활동조사)

전국 **6위**



한남대학교 디자인팩토리
글로벌 네트워크(DFGN) 가입

세계 **27번째** / 국내 **2번째**



대학브랜드평판

(2019. 4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대학브랜드 빅데이터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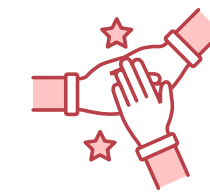
전국대학 **31위**



2019 한경 취업·창업 대학평가

(2019. 12 한국경제신문 전국 4년제 161개 대학조사)

전국 **17위**



학생 창업자 수 / 학생 창업기업 수

(2018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활동조사)

전국 **10위**

• DFGN은 디자인팩토리의 교육철학 및 교육방식을 유사한 학습 환경(DF-environment)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연계 프로젝트 진행

• 핀란드 알토대학, 스위스 CERN 연구소 등 세계 23개국 29개 선진대학 및 연구기관 모임

이야기 하나,

2025년 한남대 캠퍼스는? 타임머신 타고 ~ 미리 가본 캠퍼스 혁신파크

#1

‘2025년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첨단산업단지 허브동 앞. 2025년 5월 16일 오전 10시를 알리는 시계탑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타임머신에서 내린 민규는 어리둥절했다. 몽롱한 꿈속에 빠져드는 것 같더니만 순식간에 시간은 5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의 미래였다.

‘스쿨버스만 가득서 있었던 ‘척박했던’ 운동장이 이렇게 바뀌었던 말야?’

믿을 수 없었다. 첨단 건물로 보이는 ‘산학연 혁신 허브동’이 들어선 운동장은 5년전의 모습이 온데간데없다. 수백여명의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학생들의 전유물이었던 캠퍼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실리콘 벨리를 연상시키는 기업건물들과 기업 지원기관, 대기업들의 간판이 곳곳에 눈에 띈다. 낯선 풍경이다.



#2

한남대 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 17학번 민규 군은 지난 한 학기동안 디자인팩토리에서 공부하며 동료들과 제품 아이디어를 공유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인 CAP팀은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 강아지와 주인이 함께하는 놀이인 터그 놀이에 대해 주목했다. 터그 놀이는 강아지가 좋아하는 놀이일 뿐 아니라 강아지의 치아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의 소견을 접하게 됐다. 적지 않은 강아지들이 치주질환을 앓고 있지만 반려인들은 치주 질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CAP팀은 강아지와 함께 놀이를 하며, 강아지의 구강 건강상태도 체크해줄 수 있는 터그를 고안했다. 터그에는 각종 센서가 내장돼있어야 한다. 강아지의 치악력을 체크해주는 압력센스와, 강아지의 치주질환의 주원인이 되는 황화수소를 체크해 주는 황화수소 센스도 내장돼 있어야 한다. 강아지와 놀아주면서 강아지의 건강상태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터그'는 반려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강아지의 악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쉽게 부서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가격도 적정해야 한다.

#3

민규는 첨단산업단지 허브동에 들어섰다. 1층에는 메이커스페이스가 들어서있다. 동료들과 함께 머릿속으로만 고안하던 스마트 터그를 현실화 시켜보는 공간이다. 강아지에게 안전한 재질을 구상하고, 쉽게 깨지지 않는 구조를 선택해 4D프린터로 형상화해서 모형을 만들어 냈다. 소형견, 중견, 대형견에 맞춤형 사이즈로 디자인도 다양화시키고 시각적인 효과를 위한 디자인도 첨부시켰다. 도면으로 구상했던 것과 실제 형상화된 모양은 다른 점이 많았다. 강아지가 터그를 물었을 때 자칫 불편할 수 있는 부분까지 찾아내고, 센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삽입할 수 있었다.

2층에는 실제 상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테크샵이 위치해 있다.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팔려야 하는 만큼 효율성이 높은 재질의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단점을 보완해가며 실제 강아지에게 터그를 가지고 놀게 해보며 장단점을 파악했다.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스마트 터그는 여러 차례 시연을 거치며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제품만 만들어 내면 하나의 아이디어에 그칠 것이다. 민규는 아이디어에 그칠 제품의 출시를 꿈꾸고 있다. 3층에 올라선 민규는 바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곳에는 민규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계해 줄 수 있는 창업 지원기관들이 들어서 있었다. 창업을 위한 컨설팅 기관은 물론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해외 전문기관까지 민규의 꿈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연구는 한남대의 관련 학과들과 협업도 가능했다. 반려동물이라는 문화가 문화 산업으로 탈바꿈 하는 순간이었다.



#4

산학협력 허브동 바로 옆에는 주거공간이 마련돼 있다. 새로운 세상이다. 오피스텔형 아파트는 산학협력 허브동에 입주한 기업인들에게 1순위 입주가 허락된다. 첨단을 입혀 새롭게 지어진 주거 공간은 대학 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기숙사 수준의 입주시설이 아니었다. 기숙사라기보다는 개별 가정의 생활이 보장되는 첨단 아파트다. 무엇보다 큰 메리트는 주거 공간 옆의 문화체육 시설과 복지시설이다.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정주 공간은 직장과 생활, 문화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하나의 작은 도시다.

‘이런 곳이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해있다고?’

2025년 타임머신을 탄 민규는 새로운 세상 속에 빠져들었다.

캠퍼스 혁신파크 선정 축하메시지

국제사이언스파크협회(IASP)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단지(science & technology park)의 약 20%가 대학 캠퍼스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적·물적 혁신역량을 보유한 대학은 미래 신산업 입지의 최적지입니다.

캠퍼스 대학 안에 창업과 기업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 대학의 혁신역량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의 핵심목표이기도 합니다.

한남 ICBT 창의·융합기반 캠퍼스 혁신파크는 기계·금속, 바이오·화학, 지식서비스, ICT 중심 산학협력공간을 만들어 입주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남대로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고, 대전 전체로서는 균형발전과 또 하나의 지역혁신성장 원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혁신파크 선도사업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기업유치 및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한남 캠퍼스 혁신파크와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연결하면 대전의 동북권이 지역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새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남대의 빛나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2019. 12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

“한남대로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고,

대전 전체로서는
균형발전과 또 하나의
지역혁신성장 원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한남대학교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한남대학교가 산학연관 협력 역량 증진과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얻은 결과이기에 더욱 값진 결실입니다.

그리고 이 결실은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청년은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대학의 우수한 인적·기반자원을 활용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이란 성공적 선순환모델 완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덕구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추진되는데 있어 필요한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Fast Track' 등을 마련해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고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한남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가 대덕구 혁신성장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전·대덕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연계한 지역 우수 인재 양성 일자리전문교육센터 운영으로 지역의 인력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덕구가 추진 중인 오정동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해 창업 인큐베이팅 기업의 기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수익모델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다시 한 번 한남대학교의 캠퍼스 혁신파크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남대학교와 대학생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대덕구청장 박 정 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이란
성공적 선순환모델 완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야기들, 

한남대학교 내에
첨단산업단지가?

캠퍼스 혁신파크
선정

대학캠퍼스 안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을 놓고 전국의 대학들의 이목이 쏠렸다. 인구절벽과 학생수 감소 등으로 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들에게 생존의 돌파구가 될수 있는 '마지막 남은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국토해양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대학부지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혁신'이었다.

전국에서 대학 32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10대1이 넘는 경쟁률이다. 대전지역에서만 충남대와 한밭대, 한남대가 신청했다. 국립대인 충남대는 한밭대의 선정에 힘을 보태겠다며 포기했고, 지역에서는 한밭대와 한남대간 치열한 경쟁이 이뤄졌다.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29일 정부는 최종 대상으로 전국에서 한남대와 강원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등 3곳을 선정했다.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에 들어서는 ICBT 창의·융합기반 산업단지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한남대 정문 옆 2만1,000㎡ 부지에는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1단계 사업으로 산학협력 2개동 2만3,820㎡의 건물이 신축되며 424억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추후 서비스 동 신축에 LH공사 민자유치 등을 통해 최대 1,000억원까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산학협력 시설은 물론 창업과 기업지원을 위한 주거, 문화 시설 등이 들어선다. 한남대는 정문옆 유희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캠퍼스 파크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대학의 인력과 연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종합적인 산학협력 지원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마련될 전망이다.

기존 산학협력과 차별화된 캠퍼스 혁신파크

정부는 대학마다 이미 산학협력단을 구성하고 운영중이었다. 진정한 산학협력이기 보다는 지방의 경우 상당 수가 임대 사업의 모양새였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기존의 산학협력과 차별화된 전략이 무엇일까? 무엇보다 지역 연계체제가 기존의 산학협력보다 강화된 부분이다. 우리대학 인근에는 대덕연구단지와 대전 산업단지가 있는만큼 이와 연계하는 한편 대덕구와 한남대가 동시 진행하는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삼각벨트 연계체제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 재생이 필요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ICBT 기반의 창업과 혁신, 성장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파트 조성으로 향후 3년 이내 기업 250개, 일자리 1,500명, 혁신형 기업 45%, 수출기업(1억원 이상)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 산학연의 구체적인 밑그림은?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 Hub동에는 On-Demand 엔지니어링센터(ERC), 소셜벤처관(리빙랩, R&SD사업단), 테크샵, Try-out 센터, ICBT 시험평가 및 인증 등 테스트베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융합 실증·체험센터가 구축, 운영된다. 재학생, 창업자 등 산학연 협력 참여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주택(행복주택)' 공급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부터 기업경영까지 성장 단계별 토탈 패키지(Total Package) 지원을 위한 창업, 엑셀러레이터, V/C, 금융, 글로벌, R&D, 정부출연연구원, 기업지원기관 등 지원기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계와 대학 협력 모델

캠퍼스혁신파크에는 대학과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출연기관, 창업지원기관,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기업지원기관이 입주예정이다. 대학 및 기업체는 이들을 활용해 혁신파크 내에서 창업아이디어 발굴, 기술개발, 제품사업화, 기업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기업 전주기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산업체는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실험 및 가공 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 대학은 산업체 공동연구 및 재학생 현장실습 등을 통해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한남대 학생들 취업을 5% 이상 향상 기대

캠퍼스 혁신파크가 들어서면 한남대학교 재학생들에게는 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 기업체 인턴십 등 실무경험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학생 창업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취업률이 5% 이상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선정을 통해 한남대가 대전충청 지역을 대표하는 사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돼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파크가 들어서는 사업예정지인 오정동 및 대덕구 지역은 기계설비 및 금속가공 등 전통 제조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캠퍼스 혁신파크를 통해 지역 전통 제조업의 첨단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남대가 대덕구와 동구, 중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 기관 본격 입주

한남대와 대전시는 지난 9월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혁신파크에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체, 출연연 및 기업지원기관과 협의를 준비 중이었다. 사업추진부서인 국토부, 교육부, 중기부와 이밖에 선정된 3개 대학 간의 협약과 더불어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남대는 2020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지정 및 착공이 이루어지고, 2022년 상반기까지 산학협력 허브동 및 서비스동을 완공할 예정이다. 2022년 하반기에 기업과 기관입주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① 캠퍼스 혁신파크 지도 ② ③ ④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예정지 ⑤ 혁신파크 구조도 ⑥ 캠퍼스 혁신파크 단계



한남대학교 제17대 총장 당선자 이광섭 교수 인터뷰

한남대학교의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사장 우영수)은 11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화공신소재공학과 이광섭(65·사진) 교수를 제17대 한남대학교 총장으로 선출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2020년 3월 1일부터 4년간이다.

이 총장 당선자는 한남대를 졸업한 동문으로, 독일 프라이브르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막스 프랑크연구소와 한국화학연구원의 연구원을 거쳐 1992년 한남대 교수로 부임했으며 대학원장, 생명·나노 과학대학 학장, 산학협력단장, 국책사업단장등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고분자학회 부회장, 대한화학회 고분자화학분과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제광응답성고분자소재학회 조직위원장, 세계 첨단고분자재료학회 조직위원장 등으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는 나노광소재분야 전문가이며 국제광자공학회 및 국제전자기학아카데미 석학회원이기도 하다.

이 총장 당선자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온 공동체를 한마음으로 묶어 한남대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며 “무엇보다 전 구성원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한마음으로 엮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새 총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소감과 포부는 어떠신가요?

우선 저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전기독학원 이사님들과 저를 적극 지원해주신 대학 구성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대학을 향한 꿈이 있어서 도전을 했지만,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벌써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의 능력과 협력을 믿습니다. 저는 다행히 전 세계의 무수한 대학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교를 어떻게 키워나가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미션스쿨이라는 정체성이 바르게 살아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진실로 학생들을 사랑하며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실현시켜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대학은 인생 전체를 스스로 디자인해 보고 실험해보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에 그렇습니다.

한남대학이 어떤 대학이 되기를 꿈꾸는가요?

무엇보다 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만족하는 대학을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이 만족하면 학부모가 만족하게 돼있고 나아가 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학생들을 만족시킬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무엇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이 대학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교육과정의 유연성 문제도 있고, 학생복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꿈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자존감이 이 대학을 통해 커지게 되면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대학이 될 것입니다.

학령인구가 줄어 대학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올해부터 이미 대학의 입학정원이 학령인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전 충청 제1사학이라는 확고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바르게 분석하면서 늘 학생들의 발전과 장래를 염두에 두고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가면, 이 위상을 지킬 수 있으리 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도 많은 변화를 요합니다. 구성원들이 이 변화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면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늘 수요자인 학생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대학 공동체가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될 때 엄청난 힘과 동력을 얻어 어떠한 어려움도 헤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 본부는 행·재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인사도 공정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실한 신뢰를 낳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산성으로 환원될 것이며 대학 발전의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학 상황은 행정팀만 경기장에 나와 뛰어서는 안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온 공동체가 모두 경기장에 나와 자기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대학 3주기 평가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장벽을 돌파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한남대 창업존 7개월간 4억원 매출 성과, 창업 성과 발전기금으로 이어져

21개 학생·교원 창업매장
활발한 활동

본교 학생·교원이 창업해 운영 중인 '창업존' 의 매출 성과가 4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3월 문을 연 이후 불과 7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21개 창업회사(점포 11개, 사무실 10개)가 이뤄낸 성과다.

한남대 창업지원단에 따르면 21개 창업존 입주기업들은 2억3,000여만원의 매출액과 1억7,000만원의 투자 및 정부지원금을 수주하는 등 4억여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3월 17개로 출발한 창업존의 업체수는 짧은 기간 동안 21개로 늘어났으며, 매출성과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남대 창업존에는 베이커리 '몽심' 을 비롯해 영상제작·마케팅 업체인 '올댓애즈', 참구류 맞춤 제작 '이불미', 아이디어 펫샵 '학교종이 댕댕이', 생활스포츠 플랫폼 서비스의 '악동컴퍼니', 전문가의 디자인이 담긴 모자를 판매하는 'JS comme ca' 등 다양한 품목이 있다. 한남대는 학생과 교원들의 실전 창업을 위해 최대 2년간 창업매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지원기관인 '합동지원센터' 를 운영하면서 학생과, 교원, 지역주민에 대한 창업 컨설팅도 벌여왔다. 매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창업존 일대에서 '주목! 한남 chang(e) up' 한마당 행사를 열고 창업마켓 할인 및 경품이벤트와 플리마켓, 버스킹공연, 팝업스토어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창업자들이 대학에 발전기금을 기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6월 한남대 창업기업 애니그마(대표 강동우, 미디어영상 4학년)의 1,000만원 발전기금 기탁에 이어 릴레이처럼 '기부문화' 가 이어지고 있다.

10월에는 창업존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몽심' 이지영 대표(미술교육과 14학번 졸업), '예순이네' 홍예원 대표(경영 4학번), '올댓애즈' 권형주 대표(건축공학 4학번) 등 3명이 학교측에 발전기금 400만원을 기탁했다.

'몽심' 은 베이커리 가게로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면서 창업존의 인기점포가 되었고 최근 대진 시내에 2호점을 개점했다. '올댓애즈' 는 광고·홍보기획 서비스에 전문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예순이네' 는 독특하고 예쁜 디자인의 악세서리로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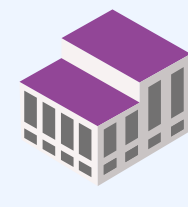
이준재 창업지원단장은 "창업최강을 모토로 우리 대학은 인큐베이팅과 실전비즈니스, 기숙형 창업타운 등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했다" 며 "합숙형 창업팀을 수용할 수 있는 창업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제품을 전시하고 실습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도 신축 중이며서 창업 지원에 더욱 전문적인 구조를 갖추게 될 전망" 이라고 말했다.

한남창업마실 창업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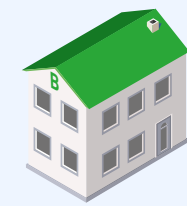
A동 아이디어 캠프

- 창업아이디어 및 기업가정신 탐색
- 창업동아리 코워킹 스페이스
- 창업도서 열람실
- 창업동아리 시제품 전시실



Market 창업마켓

- 학생 실전창업 공간(Road shop 및 Office)
- 창업컨설팅 합동지원센터
- 창업매장별 이벤트 및 멘토링진행
- 열린책방(아마서적)
- H3 story(Global Start up Cafe)



B동 멘토링·행정캠프

-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공간
- 컨설팅 및 창업 아이템 구체화
- 독립컨설팅룸(6개)
- 창업마실 행정사무실



Dormitory 창업기숙사

- 365일 창업을 꿈꾸는 몰입형 창업기숙사
- 코워킹 스페이스, 아이디어작업실, 사생실(6개)
- 창업기숙사 전용 멘토링 프로그램
- 창업 선·후배 창업아이디어 콜라보레이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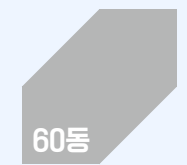


C동 창업보육캠프

- 실전창업 최종 준비
- 창업보육공간(14개)
- 엑셀러레이팅 지원
- 시제품제작 및 시험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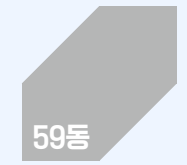


창업마켓 입주 현황



의류, 악세서리 등 Road 매장 Zone

- 101 H3 Story Café • 103 운영지원실
- 104 Dearmy_0 • 107 JS Comme ca



선물용품, Take-out 등 Road 매장 Zone

- 102 몽심떡 • 103 예순이네 • 105 학교종이 댕댕이
- 106 다온 • 107 ATM • 108 코코넛 브라더스(협력사업팀)



아마서적 & 브랜드샵



온라인쇼핑몰 등 Office Zone

- 201 H3 Story Café • 202 올댓애즈
- 203 레반코리아(협력사업팀) • 204 이불미 • 206 악동컴퍼니



교원창업 등 Office Zone

- 204 창업컨설팅 합동지원센터 • 205 MICE PRO
- 206 노네임프레스

① — [교원창업]
JS폼사 김정신 대표

국내 최고 모자 디자이너의 멋진 도전

한남대 의류학전공 김정신 교수

“JS폼사요? 정신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작품 어때요?
라는 의미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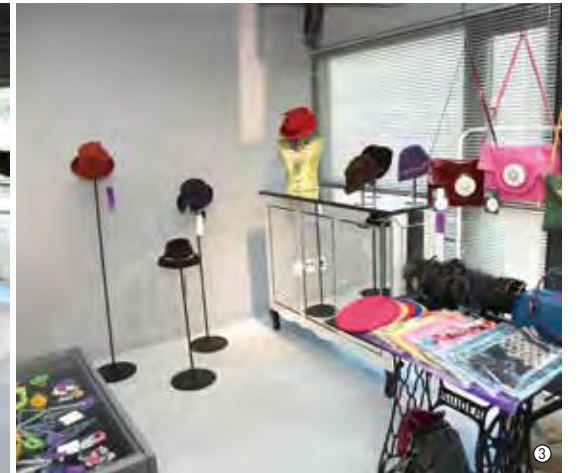
한남대 창업존에는 ‘국내 최초 모자 개인전’을 열고
모자 전문가로 알려진 의류학과 김정신 교수의 ‘JS폼사’
매장이 입점해있다. 캠퍼스 대학로와는 다소 이질적일
수 있는 럭셔리 매장이지만, 세계 모자시장에서 디자인
대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최고의 상품을
선보이는 독보적인 매장이라는 자부심도 크다. 모자를
통해 생각을 열고, 마음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김정신
교수는 그의 모든 삶을 작품에 녹여낸다.



①



②



③

① 김정신 대표 ②, ③ 폼사 매장전경

김 교수는 패션디자인 전공으로 의상 작품 전시와 패션쇼 등
의 활동을 해왔다. 의상이 완성된 후 주제에 따른 패션 스타일
을 완성하기 위해 패션 악세서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전
체적인 스타일을 완성하는데 패션 악세서리 가운데 모자는 시
각적인 인지도가 높아 최상의 패션 아이템이라 생각했다. 이를
계기로 김 교수는 프랑스 파리 모자 전문학교에서 모자를 전
문적으로 공부했고 1994년 국내 최초로 모자 개인전을 열었
다. 그의 모자에 대한 열정은 지속적으로 모자 작품 전시와 논
문 등으로 모자 연구를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미 국내에서
는 모자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이미 그의 작품은 세계 모자시장에서 정평이 나있다. 김 교수
의 작품은 고가로 세계시장에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
던 중 한남대학교의 창업존이 들어섰고, 김 교수는 이를 계기
로 창업존에 모자 전문 매장을 열었다.

김 교수는 “2018년 학교에서 교수창업자에게 1년 동안 연구년
제도도입과 창업 장소제공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면서 용기를
내 도전하게 됐다”며 “작품이면서 상품으로 대중에게 다가가
기 위해 소비자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됐다. 디자인 대비 최고
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상품임을 자부하며 판매하고 있고 소비
자들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창업초기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여건상 디자인과 생산, 마케팅, 세
무 등 관련 업무를 일인 다역으로 해야 했고, 직원 채용 필요에 따
른 재정 부담도 다가왔다. 더욱이 김 교수의 작품은 재료 구입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었고, 모자 작품 하나하나 대량 생산이 아니
다보니 목형 제작 경비 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어려움 속에서
도 김 교수의 작품에 마니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창업존의 마
스콧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 교수는 “연말 파티를 위한 장식으로 모자를 제작했는데 머리
술이 적은 소비자들의 단점을 보완하며 멋까지 추구할 수 있어 소
비자들이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등 인기
상품이 되고 있다”며 “모자에 여러 가지 영감을 불어넣으면서 자
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다양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창업을 계기로 예술성과 기능성을 결합한 디자인 상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 과학 기술 장비를 이용해
두상 연구를 기반으로 한 모자 디자인과 소재를 도입해 차별화 전
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속적
으로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고 재정투자 준비 등을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① 푸드 리퍼브 이명원 대표 ② 학생들에게 샐러드를 판매하고 있다. ③ 푸드 리퍼브 매장 전경

② [학생창업] 'ST.REFURB 14' 푸드 리퍼브

못난이 과일의 화려한 변신, 학생창업이 바꾼 편견

한남대 컵과일 카페



“단지 외모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졌던 농산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농가도 소비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남대학교(총장 이덕훈)에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푸드 리퍼브’ 운동이 학생창업으로 새로 태어났다.

지난 11월 18일 한남대 56주년기념관 2층에 학생들이 창업한 컵과일카페 ‘ST. REFURB 14’(대표 이명원·글로벌IT경영 4년)가 들어섰다.
‘컵과일 카페’라는 창업 주제로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공모를 실시했고, 이명원 대표팀이 최종 선정됐다.
이명원 대표는 최동혁(화공신소재 3년)·최진수(글로벌IT경영 4년)씨와 팀을 이뤄 학교가 공모한 창업 주제인 ‘컵과일’에 ‘사회적경제’를 입혔다.
2014년 프랑스에서 시작해 전세계의 트렌드로 확산하고 있는 ‘푸드 리퍼브’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상품 가치를 잃어버린 농산물 등을 활용해 새로운 식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9년 유엔식량농업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상품가치를 이유로 버려지는 음식쓰레기 양은 전세계 음식물 소비량의 3분의 1인 13억 톤에 이르고 있다. 푸드 리퍼브는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를 줄여 환경문제도 극복하자는 취지이다.
국내 농가들도 ‘예쁜 농산물’은 판로를 찾아가지만, 못난이 농산물이나 흠집이 있는 상품들은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원 대표는 이점에 주목했다.

상품가치가 떨어진 농산물을 컵과일과 샐러드, 샐러드 파스타, 과일주스 등으로 탄생시켜 학생들에게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농가의 소득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또 가공식품에 익숙해진 대학생들이 과채류를 꺼리는 분위기도 바꿔 학생들의 건강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다.
못난이 농산물을 사용하다보니 샐러드의 경우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양을 3,900원~4,500원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 컵과일도 대용량이 3,000원 수준이면 구매가 가능하다. 못난이 과일을 이용한 디톡스 주스와 각종 과일 주스도 판매한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교내 배송은 물론 스마트폰 앱과 홈페이지 등을 개발해 배달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리퍼브 과일카페를 전국으로 프랜차이즈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창업을 했으니 수익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취업·창업분야 눈에 띄는 독보적 질주

본교가 전국 대학의 취업·창업 역량 평가에서 잇따라 성적을 내며 독보적인 질주를 하고 있다. 취업과 창업 분야의 성과물들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본교의 ‘학생제일, 창업최강’ 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본교 우수청년드림대학 처음 진입

12월 10일 동아일보사와 고용노동부, 마크로밀엠브레인이 공동으로 대학의 취업·창업 지원 역량을 분석한 ‘2019 청년드림대학’ 평가에서 본교가 처음으로 ‘우수청년드림대학’ 으로 선정됐다.

동아일보가 발표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224개 대학 가운데 ‘대학 알리미’ 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46개 대학이 청년드림대학의 영광을 안았으며, 한남대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25개 대학에 손꼽히는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대학은 10개, 우수대학은 15개, 청년드림대학은 21개 대학을 선정하며, 본교는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전국 25개 상위에 랭크됐다.

실전형 인재 양성으로 15개의 우수대학 내에 이름을 올린 한남대는 창업분야의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창업아이디어를 실제 사업 모델로 만들기 위해 본교가 올해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예비창업자나 초기 창업자와 학생이 한 팀을 이뤄 수업을 진행하고 기초 교과부터 사업계획서 제출까지 3개 과목을 이수하고 학부 졸업증서와 별개로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증명서를 받게 된다.

한남대가 실시하고 있는 꿈나무 창업 콘테스트와 그와 연계한 창업인재 전형도 창업지원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경 취업창업평가 종합 17위·매경 창업지수 4위

지난 5일 한국경제신문과 캠퍼스 잡앤조이가 함께 진행한 ‘2019 한경 취업·창업 대학 평가’ 에서 본교가 국내 4년제 161개 대학 가운데 종합 17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33위에서 1년만에 16계단을 올라서며 취업·창업 분야의 독보적인 성장세를 자랑했다.

한국경제신문과 캠퍼스 잡앤조이가 함께 분석한 ‘2019 한경 대학 취업·창업 평가’ 는 국내 대학들의 취업·창업 경쟁력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는 4년제 대학 161개와 전문대학 133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9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빠진 30개 대학과 별도 설치법 5개 대학은 제외했다.

평가 지표는 취업률(20점), 유지취업률(20점),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10점), 창업 학생 수(15점), 학생당 창업지원액(10점), 학생당 창업전용공간 규모(10점), 창업강좌 이수학생 비율(5점), 비교과 창업활동 참여학생 비율(10점) 등이다.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한양대가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기술교육대, 성균관대, 포항공과대 순이었다. 대전권에서는 유일하게 한남대만 이름을 올렸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본교는 매일경제신문이 전국 24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창업지수에서 전국 4위를 달성한바 있다. 대학의 창업 인프라와 창업지원, 창업성과 등을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광주과학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원, 경일대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 한국경제 취업·창업평가 (2019)

순위	대학명	점수
1	한양대	74.78
2	한국기술교육대	73.54
3	성균관대	65.37
4	포항공과대	62.45
5	고려대	61.01
6	아주대	60.14
7	한국산업기술대	59.66
8	인천대	59.56
9	동국대	59.14
10	순천향대	56.78
11	국민대	56.72
12	호서대	55.52
13	동서대	55.41
14	한양대 ERICA	55.16
15	송실대	55.04
16	인하대	54.92
17	한남대	54.49
18	서울대	54.38
19	광운대	54.26
20	경일대	53.56

🏆 매일경제 대학창업지수 (2019)

순위	대학명	점수
1	광주과학기술원	94.6
2	한국과학기술원	84.5
3	경일대	82.4
4	한남대	80.9
5	한양대 ERICA	78.4
6	동국대	78.1
7	고려대	77.9
8	인천대	75.6
9	한양대	74.7
	건국대	

💡 동아일보 청년드림대학 (2019)

구분	대학명 (가나다순)
최우수 청년드림 대학	경운대, 동국대, 동명대, 선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양대
우수 청년드림 대학	한남대.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세종대, 숙명여대, 송실대, 연세대, 인천대, 중앙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서대
청년드림 대학	가톨릭대, 가톨릭관동대, 경일대, 광주대, 계명대, 단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서대, 동의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세명대, 영남대, 원광대, 전주대, 중부대, 충남대, 한림대, 호남대, 호서대

새롭게 바뀐 한남대 캠퍼스 — 계의돈기념관, 공과대학, 디자인팩토리

과거 이과대학이 위치해있던 계의돈기념관 로비가 새롭게 리모델링 됐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대학 캠퍼스의 여유가 묻어난다. 오랜시간 한남대의 가장 고층 건물로 눈에 띄던 공과대학 외벽도 새롭게 탈바꿈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융복합 교육 혁신 플랫폼인 디자인팩토리 건물은 겨울을 맞아 겨울옷으로 바뀌어 더욱 멋스럽다.



① 계의돈기념관 내부 전경 ②, ④ 공과대학 외부 전경 ③, ⑤ 디자인팩토리 외부 전경



모교의 후배들에게 보내는 편지

정인웅

에미레이트 항공사 기장
(한남대 영어영문 89)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모교 한남대학교의 후배 여러분.
저는 89학번 영어영문학과 졸업생 정인웅입니다. 저는 93년도에 대학을 졸업 후 공군사관후보 조종장교로 임관해 10년간 공군 수송기 조종사로 의무 복무 후 전역한 뒤 대한항공을 거쳐 현재는 두바이의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보잉 777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영어를 잘하고 싶어 영문학과에 입학한 후에 3년간 한남 타임스 영자신문사 기자와 편집장을 거쳤으며 4학년이 되어서는 영문과 외국인 교수님의 조교 생활을 했습니다. 한남대학교가 제공한 최고의 혜택을 모두 누린 4년이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영문과와 영자신문사를 거치며 배운 영어와 리더십은 오늘의 저를 만든 기초체력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후배들에게 드리는 조언으로

대학에서 반드시 영어, 특히 회화를 마스터하기를 조언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익힌 영어를 도구로 이후 공군에서 조종기술을 배워 현재까지 26년째 비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눈에 드러나는 이력서에 들어갈 스펙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영어실력 향상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대학 졸업 후에 이미 포화된 레드오션인 곳에서 경쟁하기보다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힘들고 소외된 직업, 그래서 보통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에 눈을 돌려보시길 조언합니다.

제가 공군 조종사에 지원했을 때 대부분 주위 사람들은 생소하고 위험한 이 직업에 왜 10년간 의무복무를 감내하면서까지 지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군생활은 화려했습니다. 대장 표창 2회와 미공군대학교의 초급 지휘관 참모과정에 비 사관학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선발되어 한국

군 최초로 우수 졸업생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모두 대학에서 배운 영어가 뒷받침되었기에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장래에 무엇을 할지 판단이 안되신다면 절대 도서관에서 대학 4년을 보내지 마십시오. 암기력이 우수한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는 일에 보편적인 지능을 가진 저같이 평범한 이들이 들러리를 쓰며 인생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외국인 교수님들과 교류하며 영어회화에 중점을 두어 영어실력 향상에 4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들 최선이 라고 가리키는 곳에는 눈길조차 주지 마십시오. 99%는 이루지 못하는 길입니다. 제게 다시 대학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영어 연극동아리(TUESDAY PEOPLE)이나 영자신문사에 들어가 똑같이 4년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때 우연히 걸었듯이, 실력이 인정받는 곳, 그렇지만 어려운 곳,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부족한 곳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는 확률이 희박하다는 곳으로 나아갈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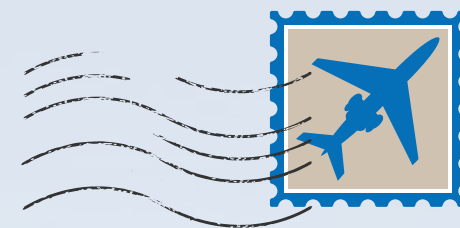
현재는 에어라인 기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필명 정인웅 기장)과 브런치(필명 캡틴 제이)에 글을 쓰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남대학교 영문과와 영자신문사에서의 경험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의 숨겨진 잠재력을 알아봐 주시고, 아직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었던 저를 학생대표로 선발해 국제학생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주셨던 영어교육과 김남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공군 비행훈련 중 어려운 순간에도 저 자신을 믿고 버티어 낼 수 있었던 자기 확신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나의 모교 한남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후배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CAPT. JUNG EMIRATES AIRLINE B777



①, ③ 기장 정복 모습 ② 공군 조종사 훈련중 T37(1994년)



한눈에 보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요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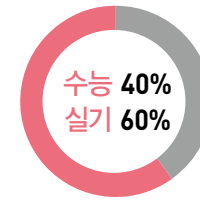


전형방법

수능위주(일반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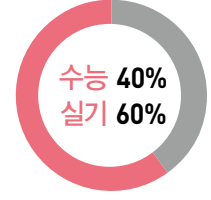


전체모집단위
(스포츠과학과 제외)



스포츠과학과

실기/실적위주(일반전형)



모집인원

307명

※ 수시모집 이월인원은 12.20(금) 21:00 이후 입학 홈페이지(<http://ibsi.hnu.kr>) 확인

모집기간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9.12.26.(목) 09:00 ~ 2019.12.31.(화) 19:00



서류제출 마감

2020.01.03.(금) 17:00 까지



합격자 발표

2020.02.04.(화) 18:00 이후



등록 기간

2020.02.05.(수) 09:00 ~ 2019.02.07.(금) 17:00

대학 수학능력 시험 반영방법

인문(의류학전공 포함)- 환산점수 300

- [국어 백분위 성적(30%) + 수학 백분위 성적(20%) + 영어 본교 등급별 환산점수(30%) + 탐구 백분위 성적(20%)] × 3

자연(자유전공학부 포함)- 환산점수 300

- [국어 백분위 성적(20%) + 수학 백분위 성적(30%) + 영어 본교 등급별 환산점수(30%) + 탐구 백분위 성적(20%)] × 3

예체능(실기고사 실시학과)- 환산점수 400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중 백분위 성적(영어의 경우 본교 등급별 환산점수)이 높은 3개 영역의 점수 합] × 4/3

※ 수학 응시유형(가, 나형)에 따른 제한 없음

※ 탐구영역(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의 경우 백분위 성적이 좋은 1개 과목만 반영함

※ 수학 가형 응시자의 경우 백분위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 계열별 반영 방법 적용함. 단, 환산총점(300/400)을 초과할 수 없음

※ 영어영역은 등급별 본교 환산점수를 적용함

※ 한국사는 필수 반영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환산총점에 가산점을 부여함. 단, 환산총점(300/400)을 초과할 수 없음



미디어영상전공

Department of Media and Visual Communications

학과소개 — ①

글_ 서영민(미디어영상전공 17학번)



“너 영상 좀 할 줄 알겠다?”

미디어영상전공을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언제나 듣는 질문이다. 미디어영상전공은 ‘영상’만 다루는 학과가 아니다. 영상에는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토크쇼 등 다양한 장르가 존재한다. 또한 영상을 구성하는 2D 그래픽, 3D 애니메이션, 게임 그래픽 등의 다양한 갈래들이 존재한다. ‘영상’이라는 한 단어 안에 정의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들이 존재한다. 한남대학교 미디어영상전공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 그래픽’, ‘3D 애니메이션’, ‘영상특수효과’, ‘방송기획제작’, ‘광고기획과 전략’, ‘인터넷 프로그래밍’. 실제 학과에서 수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넓은 분야와 많은 수업을 듣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나 또한 걱정이 앞섰다. 가장 큰 걱정은 쏟아지는 과제였다. 덕분에 항상 인사례교양동 4층은 1년 365일 불이 켜져 있는 층이 되었고, 야식배달의 성지로 자리잡았다. 해가 지날수록 지레 겁을 먹기 일쑤였다. 하지만 돌아봤을 때 고등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서 친구들과 공부했던 수험생 생활처럼 그 과정들이 잊을 수 없는 동기들과

의 추억으로 쌓여갔다. 또한 수업을 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동기들과 함께 매년 멋진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대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도전중이다. 학과의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영상동아리 ‘L4’는 매년 학과 영상제를 담당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또, 3D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산학협력활동을 진행하는 ‘창의공작소’ 또한 미디어영상전공 학생들의 꿈을 넓혀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후배들에게 촬영 현장을 경험하게 해주는 선배들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는 후배들과의 조화. 미디어영상전공은 ‘영상’만 만들지 않는다. 그 안에서 선후배간의 관계를 다지고, 동기들과의 우정을 쌓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서로가 호흡을 맞춘다. 우리는 함께 하는 4년 속에서 영상 ‘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미디어영상전공 학생이 되었다.

누군가 나에게 “너 영상 좀 할 줄 알겠다?”는 말에 이제는 “아니”라고 대답 할 수 있다.



상담심리학과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학과소개 — ②

여러분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요즘 연예계에 잇따른 비보가 들리면서 우울증이 사회적문제로 조명 받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외로움’과 ‘우울증’은 현대인들에게 떨 수 없는 병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외로움 장관’을 임명해 법무부 차원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을 정도죠.

뿐만 아니라 세대 및 계층 간의 갈등, 문화적 다양성의 충돌, 사회적 트라우마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치료, 상담에 대한 활동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만큼 상담사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 심리상담학과에서는 자신을 깊게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인의 심리적 문제부터 사회문제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회갈등과 트라우마 해결조력’, ‘상담심리분야 전문가 양성’, ‘상담매체 및 도구 개발’로 교육과정이 진행됩니다.(*자세한 교육과정은 오른쪽 표 참고)

심리학개론, 상담이론과 실제 등 상담심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은 물론 범죄심리학, 트라우마 심리치료, 갈등조정과 상담 등의 교육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양성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담매체·도구개발 교육과정은 4차 혁명시대에 발맞춘 커리큘럼으로, 좀 더 차별화된 상담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평소 타인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 공감과 소통능력이 좋았던 학생이라면 상담심리학과에 진학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교육과정

• 지역사회봉사 및 사회갈등과 트라우마 해결 조력

상담윤리, 다문화상담, 대인관계세미나, 갈등조정 이론과 실제, 갈등 조정과 상담, 범죄심리학, 트라우마심리치료, 지역사회와 상담, 학교 상담, 청소년상담

• 상담심리분야 전문가 양성

심리학개론, 상담이론과 실제, 발달심리학, 심리검사, 심리측정, 이상 심리학, 임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직업심리학, 집단상담, 학습심리학, 가족상담, 진로상담, 심리통계, 상담수퍼비전, 상담기법 훈련, 상담연구방법론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담 매체 및 도구의 개발
상담실습, 임상현장실습, 상담과 매체, 인공지능과 상담, 빅데이터와 상담, 캡스톤디자인, 융합캡스톤디자인, 취창업전공세미나





디자인팩토리 프로젝트 코치 사라 트린다데 (Sara Trindade)

본교는 지난 9월 핀란드 알토대학이 주관하는 글로벌 교육혁신 네트워크인 '디자인팩토리 글로벌네트워크(Design Factory Global Network)'에 국내에서 2번째로 공식 가입을 승인받았다. 대학교육의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는 디자인팩토리가 글로벌 네트워크(DFGN)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수반돼야 한다. 우리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프로젝트 코치'라는 생소한 분야로 일하고 있는 사라 트린다데씨를 만나보자.

Q. 한남디자인팩토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나요?

A. 저는 한남디자인팩토리의 프로젝트 코치입니다. 주로 디자인씽킹 프로세스를 활용해 학생들의 혁신 프로젝트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우리대학이 DFGN과 강력한 관계구축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혁신 사고,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한남대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포르투디자인팩토리(Porto Design Factory)에서 동료였던 분을 통해 한남디자인팩토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올해 초 '디자인팩토리 부트캠프 2019'에 참가하면서 한남디자인팩토리 관계자분들을 만났고, 한남디자인팩토리에서 디자인씽킹 세계적인 프로젝트 경험 이 있는 직원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해외 취업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한남 디자인팩토리의 연락을 받았을 때 이곳의 비전, 성과 및 미래의 가능성을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10대 시절부터 한국 문화를 매우 동경해 왔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Q. 한남대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고 어떤 가능성을 갖고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한남대학교를 처음 방문했을 때 아름다운 캠퍼스를 포함한 대학의 시설과 도시 생활 양식과 자연환경을 모두 갖춘 대전의 위치 등에 매우 놀랐습니다. 또 중요하게 본 것은 증가하고 있는 대학의 글로벌 협력과 연간 교환학생 수였습니다. 이곳에 디자인팩토리를 설립하는 것이 대학과 저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글로벌 연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한남대 근무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A. 저는 산업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전공이 끝난 후 저는 제품 및 서비스 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다양한 환경과 다문화적 팀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개발했습니다. 한남디자인팩토리에서 일하기 전 저는 포르투갈에 있는 포르투(Porto)디자인팩토리에서 디자인씽킹 코치와 TA(Teaching Assistant)로 일하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혁신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Q. 한남디자인팩토리의 발전 가능성은 어떤가요?

A. 한남디자인팩토리가 산학 프로젝트와 DFGN(Design Factory Global Network)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참여하는 교수와 디자인 팩토리를 운영하는 직원들은 학생들의 사고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큰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A. 한남대학교에서 한남디자인팩토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한국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Q. 한남대 학생들과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디자인팩토리의 플랫폼들은 교육과 산업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거의 매일 출시되고 있어 그러한 기술의 성장을 따라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디자인팩토리는 신세대들에게 비판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일깨워 미래의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또 한 학생들이 다학제·다문화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사고방식 등과 같은 실제 업무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소프트스킬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러한 국면을 인식하고 학생들 미래의 변화와 세계 트렌드를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원 성가대 호산나찬양대의 유일한 외국인 존 시몬스

탈메이지교양대학 존 시몬스 교수
(Professor John Simmons,
Talmage College of Liberal Arts)



매주 수요일 수요교직원 예배를 참석하면 푸른 눈의 금발 성가대원이 눈길을 끈다. 서툰 한국말을 하지만 매주 짧은 연습 시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된 성가를 무리 없이 소화해낸다. 매주 빠짐없이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그는 본교 탈메이지 교양대학 소속 존 시몬스(John Simmons) 교수다. 신입생을 위한 영어 수업과 린튼 글로벌 대학의 재학생들을 위한 전공영어 과정까지 가르치고 있다.

Q. 외국인인 시몬스 교수님이 한남대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저는 5년이상 한남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몇몇 교수님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항상 한남대의 좋은 업무 환경과 전문적인 성장 기회에 대해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전임 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좋은 마인드를 가르치는 다른 전문가들과 대학에 합류할 수 있게 돼 기뻐했습니다.

Q. 한남대의 어떤 매력과 가능성 때문에 한남대에서 일하게 되셨나요?

A. 한남대는 교수들이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다른 부서의 전문가인 교수님들과 교류·협력 할 수 있는 환경이 교수직을 수행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학 교와 같은 큰 규모의 대학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유형의 코스를 개설할 수 있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강의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부서의 교수님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학내 카페에 가면 학생은 물론 교수님들, 학장, 경영진까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Q. 매주 교직원 합창단에서 성가대원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얼마나 오래 봉사 했으며,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2019년 봄부터 합창단에서 노래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2학기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대학 시절 3인조 찬양단과 콘서트밴드, 재즈 밴드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음악을 매우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처음 학교에 부임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성가대의 합창을 보고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서장인 신명희 교수님께 합창단원으로 봉사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고, 부서장인 신 교수님께서 성가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Q.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나요?

A. 성가대 봉사는 항상 좋은 경험이자 좋은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혀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없습니다.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모든 성가단원들은 매우 친절하시고 도움을 주시려 합니다. 제가 음악이나 리허설 연습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모든 단원들이 혹사라도 제가 어렵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일사불란' 하게 저를 돕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십니다.

Q.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A. 성가대와 관련해 제가 연습과 공연에 참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한 최대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 제 위치와 관련해서는 탈메이지의 교수팀과 계속 협력해 보다 효과적인 교수법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더좋은 수업을 하기위한 연구 수행을 할 것입니다. 영어 교육의 장점중 하나는 각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현재 수업을 통해 미래에 영어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싶습니다.

Q. 한남대 학생들과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학기가 끝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이를 깨닫기 위해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 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예배당에서 수요일 12시에 모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HNU NEWS

주요뉴스



① 창의수업 기반 ‘마이크로 디그리’ 국내 최초 도입

본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창의력 수업(디자인 씽킹)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디그리’를 도입했다.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는 학점당 학위제로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하면 학사학위와 별개로 미니 학위를 주는 제도다. 본교는 이를 위해 미국 스탠퍼드대, 핀란드 알토대, 일본 와세다대 등 글로벌 혁신대학을 방문, 선진 교육프로그램과 관련자료를 조사했으며, 한남대만의 특성을 살린 실험적인 교육모델을 구축했다.

2019년 여름방학 계절학기과 더불어 한남대 ‘DH(디자인한남)-SCHOOL’이 운영을 시작하는 마이크로 디그리는 ‘창업’ ‘서비스러닝’ ‘자기전공설계’ 등 3개 분야다. 통상 한 학기 수업을 2주 과정으로 압축해 기초교과, 탐구교과, 실천교과 등 분야별로 총 2학점 단위 3개 교과를 캠프형 수업으로 집중 이수토록 설계했다. 총 140명이 훨씬 넘는 학생이 지원했으며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4명이 최종 선발됐다. 수료한 학생에게는 정규 학점 부여는 물론, 학사학위와 별개로 취업 및 창업 시 개인역량 인증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이수증서(디그리)를 발급해준다.



② 한남대 전통시장 서비스러닝센터 오픈

한남대 전통시장 서비스러닝센터가 대전 중앙시장에 문을 열었다.

서비스러닝센터는 대학생들이 전공지식을 전통시장에 접목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청년창업 및 취업지원 연계 등의 거점 센터가 될 전망이다.

7월1일 오전 11시 대전중앙시장 내 한남대 전통시장 서비스러닝센터에서는 한남사회혁신원 주최로 오픈식을 가졌다. 이덕훈 한남대 총장,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박황순 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장 등을 비롯해 전통시장 전문가 및 청년몰 참가 학과 학생 및 교수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비스러닝센터 설립을 통해 전통시장 청년 창업 및 취업 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중앙시장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또 한남대와 중앙시장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진행한다. 한남대는 서비스러닝 교과목 학점부여는 물론 봉사활동 1학점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중앙시장 서비스러닝센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③ 한남대, 몽골땅에 잠든 이태준열사를 기린다.

본교 '2019 하계 해외봉사단'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7월 19일 몽골 울란바타르 이태준 선생(독립운동가·의사) 기념공원을 찾아 한남대 기증 묘목을 식재했다.

한남대 몽골 해외봉사단(단장 정형재)은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태권도, 미술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봉사와 벽화작업 등 환경정화 활동, 지역민 봉사활동 등을 진행 중이다.

봉사활동 기간 중 학생들은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에 기증 묘목을 식재했으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태준 열사는 몽골 국왕 보그드 칸의 어의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항일운동에 동참했다. 그는 중국과 몽골을 오가는 항일지사들에게 숙식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독립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상해임시정부의 군의관 감무(감사)로 활동하며 독립자금 운송, 의열단 활동 등 항일운동을 해왔다.

④ 한남대가 궁금하면 ‘타유버스’ 타봐요. 이색 입시 홍보

본교는 농어촌 및 정보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타유버스’를 운행하며 찾아가는 입시 정보를 제공했다. 농어촌 지역과 학비지원 수혜율이 25% 이상인 소외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풀 패키지 버스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타유버스를 운행했다. 버스 내에 모의면접과 상담이 가능한 테이블과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타유버스를 타는 고교생들은 한남대 교수 및 입학사정관의 1대 1 모의면접 클리닉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타유버스는 경북 구미의 순심여고와 김천 성의여고 등을 시작으로 세종지역 3개 고교, 논산고와 연무고 등을 찾아간다.

기존의 입학설명회가 대규모 박람회 행사나 온라인 대입전형 설명회가 대부분이었다면 타유버스는 학생들에게 친근감과 호기심을 주면서 1대 1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호응도가 높다.



⑤ 본교 수시모집 경쟁률 상승, 지역사회립대 유일 전과목 반영에도 올라

본교는 2020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에서 대전·충남지역 사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전교과 전과목’ 반영으로 수험생들의 부담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전·충남 지역에서 고교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전교과 전과목을 모든 전형에 적용하는 대학은 사립대에서 한남대가 유일하며 국립대 중에 충남대, 공주대만 반영한다.

한남대는 지난 10일 마감한 수시 원서접수에서 총 2,518명(정원외 포함) 모집에 입시 역사상 최대 인원인 12,026명이 지원해 4.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의 4.61대 1에 비해 상승한 것이다.



⑥ 한남대, 국내 2번째 디자인팩토리 글로벌네트워크(DFGN) 가입

본교는 지난 9월 18일 핀란드 알토대학이 주관하는 글로벌 교육혁신네트워크인 ‘디자인팩토리 글로벌 네트워크(Design Factory Global Network, 이하 DFGN)’에 국내에서 2번째로 공식 가입을 승인받았다. 디자인팩토리는 디자인씽킹 기반 다학제 교육혁신 플랫폼으로, 산업체와 연계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DFGN에는 핀란드 알토대학, 스위스 CERN연구소 등 세계 21개국 27개의 선진대학 및 연구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BMW, 구글, 아마존, 에어버스 등 글로벌 기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에어버스사의 A380 기종에 설치된 승객의자 디자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남대는 국내에서 연세대에 이어 두 번째, 지방대학으로는 최초로 DFGN에 가입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HNU NEWS

한 남 인 연



⑦ 한남대학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 운영기관 3년 연속 선정

본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공동 사업인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공모에서 3년 연속 선정됐다 대전시에 이어 올해는 세종시까지 공동으로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체부와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및 지역문화예술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학생들 누구나 공교육 과정에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새로 운영을 맡은 세종시의 경우 100여 개 초·중·고·특수·대안학교에 100여 명의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문화 예술교육 인재양성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운영해 운영 학교 예술 강사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⑧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역 분과협의회 개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역 분과협의회(회장 이종서 대전대 총장)가 11월 1일 오전 11시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사립대학 총장 및 부총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주요 안건을 논의한 뒤 한남대 이덕훈 총장의 안내로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캠퍼스 혁신파크 등 한남대의 최근 혁신성공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⑨ 한남취업멘토 100의 밤 개최

본교는 11월 5일 교내 무어아트홀에서 '한남취업멘토 100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덕훈 총장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김영태 전 사장, 각 기업 및 기관의 인사담당자, 전문가, 한남대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남대는 올해 1월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 기업인, 각계 전문가들로 취업멘토단을 구성했으며, 학생들의 취업 멘토링부터 취업에 필요한 소양 및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경쟁력 있는 인재로서 사회진출을 하도록 돕고 있다. 이날 우수 취업멘토들의 멘토링 사례 발표를 듣고, 재학생들과의 간담회 및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⑩ 한남대-대전충남세종 경제단체협의회 산학협력교류회

본교는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와 산학협력 교류를 위해 네트워크 장을 마련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선정과 창업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계와 상호협력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한남대는 11월 20일 오전 11시 30분 대학본관 대회의실에서 '한남대-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 산학협력 교류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날 교류회에서는 지역경제와 대학발전을 위한 지식과 정보공유,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남대는 학생들의 장기현장실습과 사회맞춤형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① 한남대 기술지주회사-사회적경제연합 업무협약 체결

본교 기술지주회사(대표 손대락)는 사회적경제연합(회장 김대형)과 기술 및 아이디어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성장지원 협력을 통한 공동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 세종SB플라자 2층(세종특별자치시 군청로 93)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아이템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및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상호지식과 기술 등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상생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협력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창업과 운영을 위한 교육·상담 및 판매지원 ▲공동관심 분야의 심포지움, 세미나, 워크숍 등에 대한 공동개최 ▲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판로확대지원 및 기술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상호 대표업무 및 활동의 홍보협력 등을 공동 진행하게 된다.

② 대덕구, 사회적기업 창업팀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본교는 대덕구(구청장 박정현) 및 사회적기업 창업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 9일 대전시 대덕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기업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이덕훈 한남대 총장과 박정현 대덕구청장, 한남대 2019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5개 창업팀 대표단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상호간의 인적·물적 협력 및 정보 공유, 창업팀의 대덕구 내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기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사업 등이다.

③ 간호학과, 일본 조사이대학 간호학과와 국제교류 협약체결

본교 간호학과와 일본 조사이대학 간호학과는 9월 2일 학생 및 교수 교류 등을 위한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일본 조사이대학 간호학과 학생들과 교수진 등 총 8명은 본교를 방문해 간호학과 실습실을 둘러보고 간호학과 유승연 교수의 성인간호학 시뮬레이션과 김미중 교수의 모성간호학 시뮬레이션에 참여했다. 이후 이들은 을지대학병원을 방문해 종합검진센터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외상중환자실, 인공신장실견학 등을 견학했다.

④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글로벌산학협력 협약체결

본교와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회장 강영기)가 한남대 재학생과 가족회사의 글로벌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10월 22일 오후 5시 한남대 인돈기념관 1층 대회의실에서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소속 회원 27명이 한남대를 방문해 협약식을 갖고 글로벌 산학협력을 약속했으며 캠퍼스투어 등을 진행했다.

한남대 LINC+사업단이 주관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주한인상공회의소는 한남대 학생들의 해외 인턴십 등 산학협력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남대 가족회사의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 시 네트워크 지원 및 시장정보 공유, 마케팅 협력, 투자 유치 지원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⑤ 본교-국제희년재단, 사회적경제 및 지역돌봄 상호협력의향서 체결

본교와 국제희년재단(준비위원장 임은빈)은 10월 31일 저녁 7시30분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사회적경제와 지역 돌봄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국제희년재단은 국제협력파트너인 이탈리아 볼로냐 협동조합 카디아(CADIAI)와 협력해 한남대와 사회적 경제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사회적 돌봄 구조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를 육성하는 한편 연구기관인 대학의 역할에 맞춰 국제적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부, 그리고 사랑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독교 명문 사학 한남대에는 마음 따뜻한 기부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교직원들의 발전기금 기탁은 물론 대학시절 딸을 잃은 부모가 수년째 발전기금을 내는 등 사연을 가진 기부금도 눈길을 끈다. 마음이 전해지는 발전기금으로 학교는 성장하고 있다.



#1. 한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의 제자사랑

– 박성희·구정화·권선영 교수 1,500만원 발전기금기탁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이 제자들을 위해 학과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문헌정보학과 박성희·구정화·권선영 교수가 각각 500만원씩 1,500만원의 학과발전기금을 기탁했다. 문헌정보학과는 오래전부터 학과 교수들이 학과 학생들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전통이 이어져왔다. 이번에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교수들은 3~4년차의 젊은 교수들로 선임 교수들의 뜻을 이어받자는 의미에서 자발적인 발전기금 기탁에 동참하게 됐다. 문헌정보학과 구정화 교수는 “문헌정보학과에 교수로 임용 받아 와보니 좋은 전통을 갖고 있었다”라며 “역대 교수님들의 발전기금 기탁 액수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제자사랑의 뜻을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2. 퇴직 교수·직원들의 학교사랑

한남대 교수들과 직원들의 학교사랑 발전기금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컴퓨터통신문인기술학과 손대락 교수가 2,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한데 이어 정년퇴임을 한 글로벌IT경영전공 김재경 교수와 경영·국방전략대학원 이봉환 팀장이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손대락 교수는 지금까지 기탁총액이 1억800여만원에 이르러 누적기금 1억원 이상 기탁자에게 주는 아너스클럽 멤버 인증서를 받았다. 인공위성에 탑재되는 자기센서를 개발하고 교원 창업 벤처기업 ㈜센서피아를 운영하는 손 교수는 회사 수익금을 매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해왔다. 또한 김재경 교수와 이봉환 팀장은 각각 36년, 37년을 한남대에서 봉직하고 정년을 맞아 감사의 뜻으로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했다.



#3. “이루지 못한 딸의 꿈 이어주길” 15년간 1억원 장학금 기부

– 김병순 (주)나노하이테크 대표 1,500만원 기탁 희귀병으로 재학중 숨진 고 김희진 학생의 아버지

대학 재학 중 희귀병으로 숨진 딸의 모교에 15년간 총 1억원이라는 고액을 기부한 아버지가 화제다. 김병순 (주)나노하이테크 대표는 한남대에 1,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5년 8월 한남대학교 일문과 4학년 재학 중 루푸스병으로 세상을 떠난故 김희진 씨의 아버지다. 김 대표는 딸이 숨지고 난 뒤 딸의 이름을 딴 ‘김희진 장학기금’을 만들어 매년 수백만 원씩 한남대에 장학금을 기부했다. 기부의 시작은 딸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의금을 내준 일문과 학생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그 고마움의 마음을 더해 해마다 장학금을 조심스럽게 내놓은 것이 어느새 15년이 되어 1억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늘어났다. 김 대표는 1억원이 넘는 기부자를 예약하는 한남대 아너스클럽의 회원이 되었다. 김 대표는 “희진이의 후배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작은 정성을 전했을 뿐이며, 한 번에 쾌척하지 못하고 조금씩 내고 있어 부끄럽다”며 “앞으로도 희진이와의 약속과 신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장학금 기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눔의 실천

여러분의 기부에 감사합니다.



| 대학발전기금 |

2019.06.11 ~ 2019.12.05

성명	기부금액
(주)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	1,000,000
(주)나노하이테크	15,000,000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500,000
(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000,000
(주)센서피아	20,000,000
(주)에프알텍	3,000,000
(주)열두시사십오분	1,000,000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1,000,000
(주)토문건축사사무소	500,000
(주)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	3,000,000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1,000,000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500,000
강동우	5,000,000
강봉수	300,000
강전의	200,000
강형식	10,000,000
계룡건설산업(주)	1,000,000
고상범	250,000
고은숙	167,700
곽건홍	600,000
곽노일	200,000
곽은희	180,000
구정화	300,000
권선영	489,000
권선영	120,000
권인기	167,700
김경자	250,000
김경태	48,650
김기애	300,000
김대현	200,000
김상배	600,000
김석수	498,000
김성철	500,000
김수미	250,000
김영민	300,000
김영수	365,000
김영은	167,700
김영태	300,000
김은혜	499,800
김인섭	300,000
김정신	3,000,000
김재경	5,000,000

성명	기부금액
김종문	167,700
김지현	300,000
김진호	300,000
김창국	267,700
김철희	360,000
김형섭	178,380
김혜숙	600,000
김흥기	300,000
김화정	600,000
나경옥	180,000
나세일	250,000
노금환	600,000
도서출판현문사	3,500,000
대세물산	1,300,000
대전성남교회	1,200,000
몽심	2,000,000
미디어인이엔티	1,300,000
박경량	300,000
박길철	600,000
박문식	300,000
박미애	200,000
박선희	300,000
박성희	120,000
박세근	167,700
박영관	200,000
박용서	365,000
박재원	300,000
박종숙	334,400
박종철	200,000
박진숙	300,000
박철수	417,700
박현선	300,000
박형진	167,700
박희진	600,000
변봉규	300,000
빈봉완	1,500,000
서명화	250,000
서영성	300,000
서영숙	600,000
석승운	1,000,000
설성수	10,000,000
성인하	300,000
손호영	558,400

성명	기부금액
송성범	167,700
신동호	2,460,000
신형근	489,000
심우건	300,000
안기석	250,000
안형준	60,000
양인호	200,000
에스피이 한국분회	1,000,000
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주)	1,000,000
예순이네	1,000,000
오성진	200,000
오연철	200,000
올댓애즈	1,000,000
우미건설(주)	1,000,000
유지은	148,650
유천성	600,000
윤선미	300,000
윤영석	167,700
윤재호	200,000
은웅	600,000
이경용	600,000
이경한	300,000
이계천	600,000
이광섭	200,000
이덕훈	1,000,000
이범만	2,000,000
이봉환	500,000
이승철	1,276,200
이용택	300,000
이인수	2,800,000
이일근	330,000
이제현	600,000
이주현	1,200,000
이진모	600,000
이진아	300,000
이진의	150,000
이찬구	150,000
이희덕	200,000
이희영	600,000
임경묵	250,000
임동은	417,700
임송옥	250,000

성명	기부금액
임영룡	167,700
임천석	300,000
장명호	417,700
장성숙	250,000
전월진	178,380
전제상	500,000
정남순	300,000
정대영	200,000
정명혜	250,000
정성은	300,000
정재완	600,000
정재환	391,300
정해신	300,000
조수민	200,000
조형호	335,400
중흥건설(주)	1,000,000
최문하	250,000
최성규	500,000
최순용	300,000
최시내	167,700
최영근	990,000
최욱	201,000
최윤경	400,000
최은미	600,000
최장우	600,000
학군단 55기	262,530
학군단 56기	1,566,150
학군단 57기	1,507,610
한가숙	250,000
한남대 실험	50,000,000
한규용	300,000
한남하이텍	6,760,000
한상동	250,000
한상민	417,700
허인욱	600,000
형진의	100,000
홍설아	200,000
홍혜진	300,000
황선남	250,000
황의정	500,000
황진영	300,000
황철호	300,000
합 계	212,968,350

나눔의 실천

여러분의 기부에 감사합니다.



| 2019학년도 학부외부기탁장학금 |

기탁일자	성명	기부금액
2019.02.18	삼우이테크	2,000,000
2019.02.21	아산사회복지재단	3,962,200
2019.02.21	아산사회복지재단	1,200,000
2019.02.25	(재)산학협동재단	4,150,550
2019.02.25	정수장학회	7,367,850
2019.02.26	재단법인 DB김준기 문화재단	3,217,300
2019.02.26	새문안교회	1,000,000
2019.03.06	기아신탄진모터스	1,000,000
2019.03.06	유한회사 세광	1,000,000
2019.03.14	조재흥	1,500,000
2019.03.20	예장총회	2,000,000
2019.04.05	대신네트웍스 춘천 주식회사	1,500,000
2019.04.10	대신네트웍스(주)	700,000
2019.05.07	김종필	120,000
2019.05.07	김성용	120,000
2019.05.07	정경철	120,000
2019.05.07	이계길	120,000
2019.05.07	서재흥	120,000
2019.05.16	신태수	2,000,000
2019.05.16	송정근	700,000
2019.05.16	서영숙	700,000
2019.05.16	김홍범	700,000
2019.05.16	이상우	700,000
2019.05.16	정민주	700,000
2019.05.28	정향재	600,000
2019.05.28	안증환	600,000
2019.05.28	신민철	600,000
2019.05.28	배정열	600,000
2019.06.05	조완상	500,000
2019.06.05	김정훈	500,000

기탁일자	성명	기부금액
2019.06.05	송진임	500,000
2019.06.05	배기주	500,000
2019.06.10	(재)군포사랑장학회	1,000,000
2019.06.17	(주)토니모리	5,000,000
2019.06.19	대학교회	7,500,000
2019.07.02	한국지도자육성 장학재단	8,434,600
2019.07.02	오성장학재단	2,786,920
2019.07.02	KT그룹희망나눔재단	3,348,750
2019.07.02	장수경	368,000
2019.07.02	김윤희	368,000
2019.07.02	김정아	368,000
2019.07.02	김정신	368,000
2019.07.02	김천희	368,000
2019.07.02	이은영	368,000
2019.08.19	한국지도자육성 장학재단	8,434,600
2019.08.19	한국천문우주 과학협회	2,000,000
2019.09.03	새하늘치과	1,177,300
2019.09.03	아산사회복지재단	5,162,200
2019.09.03	정수장학회	7,367,850
2019.09.03	(재)연재장학재단	2,500,000
2019.09.03	산학협동재단	4,150,550
2019.09.03	재단법인 DB김준기 문화재단	3,217,300
2019.09.25	대건산업건설(주)	3,217,300
2019.10.14	영양군인재육성 장학회	1,000,000
2019.10.17	태암문화재단	2,500,000
2019.10.17	삼척향토장학재단	2,000,000
2019.10.17	계룡장학재단	2,000,000
2019.10.17	계룡장학재단	2,000,000

기탁일자	성명	기부금액
2019.10.17	(주)이글루시큐리티	2,000,000
2019.10.17	한남장학재단	16,500,000
2019.10.17	태암문화재단	5,000,000
2019.10.17	박세용	1,000,000
2019.11.18	한목회	4,000,000
2019.11.26	지헌장학재단	2,000,000
2019.11.26	선창교회	2,000,000
2019.11.26	대학교회	1,000,000
2019.11.26	새문안교회	1,000,000
2019.11.26	지헌장학재단	1,000,000
2019.11.26	김홍범	500,000
2019.11.26	송정근	500,000
2019.11.26	이상우	500,000
2019.11.26	정현경	900,000
2019.11.26	전형채	190,000
2019.11.26	박정규	190,000
2019.11.26	정민주	500,000
2019.11.26	김진성	550,000
2019.11.26	고병찬	190,000
2019.11.26	김영철	790,000
2019.11.26	서영숙	500,000
2019.11.26	오성장학재단	1,500,000
2019.11.26	KT그룹희망나눔재단	3,340,200
2019.11.26	황은택	1,000,000
2019.12.02	김종필	240,000
2019.12.02	이계길	240,000
2019.12.02	정경철	240,000
2019.12.02	김성용	240,000
2019.12.02	서재흥	240,000
합 계		165,953,470

기부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과 권리

본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학교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합니다.

- 기금의 기여정도와 기부하신 분의 의사에 따라 건물 또는 건물 내 특정 공간의 명칭을 명명하실 수 있습니다.
- 출연하신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 및 법인 세제혜택을 위하여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기부자 명단은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에 공지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발전기금 참여방법

● 방문납부

학교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전기금을 기탁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본관 1층에 위치한 대외협력팀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 급여공제

본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가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외협력팀(Tel. 042-629-7502~3, 8099)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 무통장입금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개설한 한남대학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사람'란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 주시고 전화로 입금내용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710401-00-002814 / 예금주 한남대학교]

| 한남사랑 후원의 집 |

2019.06.11 ~ 2019.12.05

성명	기부금액
LA농장	300,000
(주)황산옥	178,380
금수강산	298,380
노블하우스 원룸	300,000
대전식당	178,380
대전현플라워	248,650
디자인 세연	49,460
루아피체리아	178,380
리더스빌 원룸	49,730
맑은골호박꼬지	248,650

성명	기부금액
몽심	19,460
베스트현수막	58,380
보자르드쉐프56	49,730
본도시락 한남대점	598,650
스바라시 한남대점	178,380
스위트베이징	298,380
쓰촨&홍콩반점	49,730
아트하우스 원룸	198,920
어굽터	178,380
예순이네	9,730

성명	기부금액
옥천순대	89,190
올댓애즈	89,190
육교회관	118,380
이디야 한남대점	298,380
이디야커피 건물	198,920
집밥	398,920
참선진 녹즙	89,190
카쿠레바	59,190
카페드림	29,730
컴스광고사	148,650

성명	기부금액
김스	178,380
김스힐	299,190
트윈벨 원룸	300,000
풍년삼계탕	178,380
플랜트 치과	199,460
하늘정원	118,920
한남플라워	50,000
형제횃집	298,380
황해면옥	298,380
합 계	7,110,580

1956-2019

한 남 사 랑

후원의 집

Hannam Supporters

대학과 지역사회가 서로 상생하는 “한남사랑 후원의 집”

어려운 경제 환경의 여건 속에서 한남 가족기업 및 지역의 상가들과 연계하여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환경에서 대학발전기금 모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남사랑 후원의 집’은 약 500여 개에 이르는 한남 가족기업의 네트워크와 학교 주변의 상가 그리고 본교 교직원 및 특수대학원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상생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대학환경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후원의 집’의 특별한 혜택

- 제휴업체에게는 “한남사랑 후원의 집” 액자를 제작하여 드립니다.
-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기부한 기부자에게는 학비감면의 혜택을 드립니다.
(5백만 원 이상 : 평생교육원, 외국어교육원 30% 감면, 1천만 원 이상 : 특수대학원 50% 감면)

